



우리의 옛 등잔을 찾아서... ⑭ 석유등(石油燈) - 호롱

밀초[蜜燭]나 동·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등(燈)과는 달리 19세기 후반(1880년경) 석유(石油) 수입 이후부터 석유를 연료로 한 석유등(石油燈)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 석유등은 빛의 밝기와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점차 전통적인 기름등잔을 대체해 갔으며, 우리나라 전국에 전기가 보급된 1970년대까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한 조명수단이었다.

조선후기 유학자 황현(黃玗 : 1855~1910)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는 등화구(燈火具)의 연료로서 석유와 성냥[洋燧火筒, 민간에서는 자기황(自起黃)이라고 한다]의 사용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석유의 경우 1880년[庚辰年, 고종 17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처음 사용하였을 때는 그 색깔이 붉고 냄새가 고약했으며 한 홉[一合]이면 열흘 밤을 켤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지 않아서 색깔이 점점 희어지고 냄새 또한 없어졌으나, 화력이 줄어들어 한 홉을 가지면 사나흘 밤 정도를 사용할 수 있었다. 석유가 나오면서부터 산과 들에 기름을 짜는 열매가 번성하지 않게 되었으며, 온 나라 안에 석유로써 등을 사용하지 않는 자가 없게 되었다고 한다.

석유등은 석유의 인화성(引火性) 때문에 전통적인 등잔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향아리 처럼 따로 뚜껑을 만들어 여기에 심지를 박아 사용하였다. '호롱'이라는 명칭도 향아리 처럼 생긴 등의 모습에서 유래한 것이며, 조도를 밝게 하기 위해 쌍심지를 내거나 1960년대 이후에 생산된 석유등의 경우 더러 '불조심'과 같은 화재예방에 대한 문구를 볼 수 있다.

설명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 국립민속박물관 자료제공

사진 1)

1930년대 // 밑지름 3.4cm, 높이 8.2cm

사진 2)

1970년대 // (좌) 밑지름 6.8cm, 높이

9.5cm/ (우) 밑지름 6.5cm, 높이 7.5cm